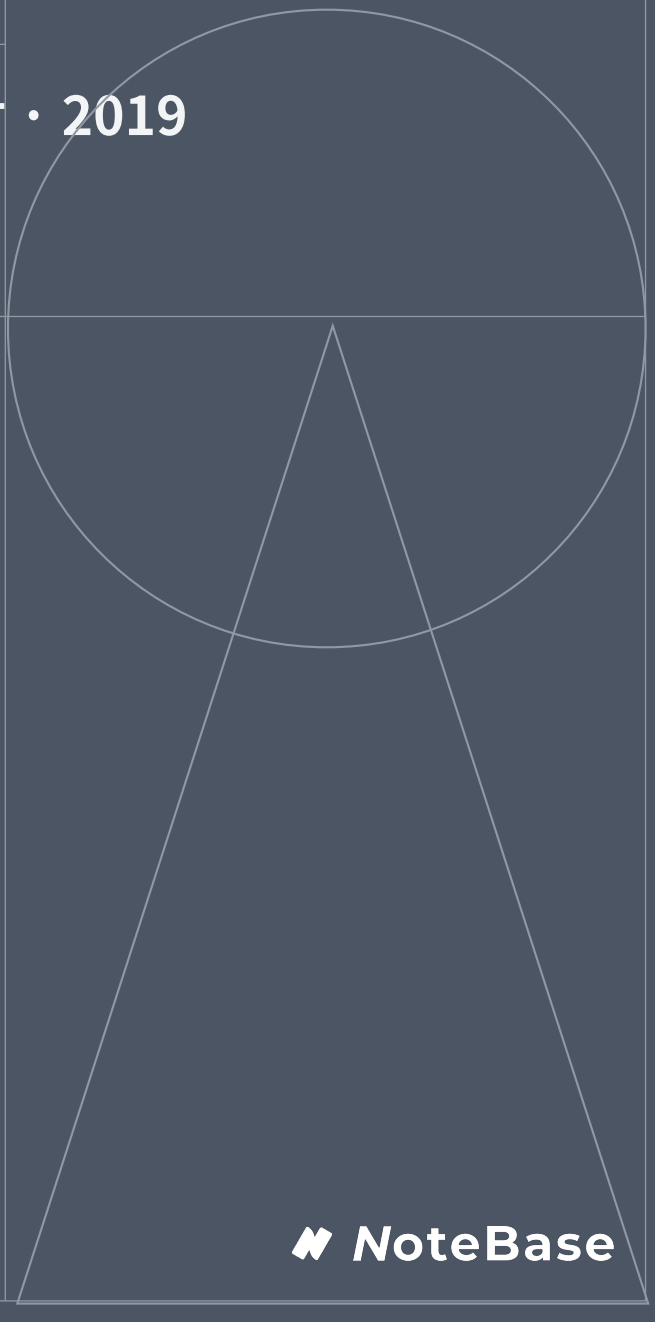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9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9

문 1.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측정기준은?

◯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① 역사적원가
② 현행원가
③ 실현가능가치(이행가치)
④ 현재가치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산을 **현재 다시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채를 현재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행원가의 설명이다.

공통 해설

제시문의 현행원가는 과거에 거래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시점에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측정기준으로 삼는다.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지금 취득한다면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과거의 취득금액이나 자산을 팔아서 받을 금액이 아니라, 현재 다시 취득하는 데 드는 금액에 초점을 둔다.

부채는 지금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문에서는 그 금액을 **할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현재시점'은 측정의 기준 시점을 뜻하며,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설명은 모두 현재의 취득·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원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비용항목의 구분표시 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성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증분별 분류

④ 행태별 분류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는 비용을 **기업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나눈 항목이므로 기능별 분류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기능별 분류는 비용을 **어떤 활동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묶는 방법이다. (주)한국은 판매한 재화와 관련된 비용을 매출원가로, 물류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물류원가로,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관리활동원가로 구분한다. 이처럼 비용이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표시하므로 기능별 분류에 해당한다.

성격별 분류와의 차이는 같은 종류의 비용도 사용된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종업원급여라는 비용의 종류로 묶으면 성격별 분류이고, 물류 담당자의 급여와 관리 담당자의 급여를 각각 물류활동과 관리활동의 비용에 포함하면 기능별 분류이다. 문제의 구분 기준은 비용 자체의 종류나 증감 양상이 아니라 **비용이 사용된 활동의 기능**이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20×1년의 상품매출액은 ₩1,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20×1년의 기초상품재고액이 ₩50,000이고 당기의 상품매입액이 ₩900,000이라고 할 때, 20×1년 말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상품재고액은?

① ₩70,000

② ₩100,000

③ ₩150,000

④ ₩18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상품재고액은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950,000에서 매출원가 ₩800,000을 차감하면 기말에 남은 상품의 원가는 ₩150,000이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며,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1,000,000 × 20% = ₩200,000이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는 ₩1,000,000 − ₩200,000 = ₩800,000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기초에 보유한 상품과 당기에 매입한 상품을 합하면 해당 연도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가 된다. 기초상품재고액 ₩50,000에 당기 상품매입액 ₩900,000을 더하면 ₩950,000이다.

기말상품재고액: 판매가능상품원가는 **판매된 부분인 매출원가와 남아 있는 부분인 기말상품재고액**으로 나뉜다. 따라서 ₩950,000 − ₩800,000 = ₩150,000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상품재고액이다.

기말상품재고액 ₩150,000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한국의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인 경우에 (주)한국의 20×1년 말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 재고액은?

◯ 생산량 10,000개
◯ 판매량 8,000개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1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40
◯ 고정제조간접원가 ₩180,000
◯ 고정판매관리비 ₩85,000

① 영업이익: ₩135,000, 기말제품 재고액: ₩220,000
② 영업이익: ₩135,000, 기말제품 재고액: ₩256,000
③ 영업이익: ₩171,000, 기말제품 재고액: ₩220,000
④ 영업이익: ₩171,000, 기말제품 재고액: ₩256,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제품원가에 **변동제조원가만 포함**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기말제품 2,000개의 재고액은 220,000원이며, 공헌이익 400,000원에서 고정비 265,000원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13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원가 처리 기준: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10원만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변동판매관리비는 판매된 제품에 대해 발생하는 당기비용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 180,000원을 기말제품 재고에 배분하지 않는다.

기말제품 재고액: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제품 재고는 없다. 생산량 10,000개에서 판매량 8,000개를 빼면 기말제품은 2,000개이다. 재고에는 변동제조원가만 포함하므로 기말제품 재고액은 2,000개 × 110원 = 220,000원이다.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40원은 재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헌이익: 매출액에서 변동매출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비를 충당하고 이익을 남기는 데 기여한다. 판매된 제품 1개당 공헌이익은 200원 − 110원 − 40원 = 50원이다. 따라서 총공헌이익은 **판매량 8,000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8,000개 × 50원 = 400,000원이다.

영업이익: 공헌이익에서 당기의 고정비 전액을 차감한다. 고정비 합계는 180,000원 + 85,000원 = 265,000원이므로, 영업이익은 400,000원 − 265,000원 = 135,000원이다.

영업이익 135,000원과 기말제품 재고액 220,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재무보고는 6개월, 3개월 등으로 보고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직전 연차 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은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로 고쳐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누적 실적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므로,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간기간은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재무보고기간**이다. 따라서 6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보고나 3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보고 등으로 보고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O: 직전 연차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직전 연차보고와 중간보고가 같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재무정보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X: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이 아니라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을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기업의 당해 연도 반기 재무상태표는 당해 연도 6월 30일과 직전 연도 12월 31일의 잔액을 비교한다.

④ O: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므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과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한 누적기간**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기업의 반기 현금흐름표는 당해 연도 1월 1일~6월 30일과 직전 연도 1월 1일~6월 30일의 현금흐름을 비교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20×1년 결산 관련 자료이다. 보험료와 임대료가 20×1년도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와 임대료 이외의 다른 계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계정	내용
보험료	○ 기초 선급보험료 잔액 ₩3,000 ○ 7월 1일에 보험을 갱신하고 1년분 보험료 ₩12,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임대료	○ 기초 선수임대료 잔액 ₩3,000 ○ 4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1년분 임대료 ₩24,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① ₩12,000
② ₩15,000
③ ₩18,000
④ ₩21,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금 지급·수령액이 아니라 **20×1년에 귀속되는 비용과 수익**을 반영한다. 보험료 비용은 9,000원, 임대료 수익은 21,000원이므로 세전이익은 **12,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식한다. 주어진 월할 계산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보장기간, 임대료는 임대용역 제공기간을 기준으로 20×1년 귀속액을 구한다.

보험료: 기초 선급보험료 3,000원은 이전에 지급했지만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7월 1일 보험 갱신 전까지의 보장기간이 지나면서 전액 당기 비용이 된다. 새로 지급한 1년분 12,000원 중 당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7~12월의 6개월이므로, 비용은 $12{,}000 \cdot \frac{6}{12} = 6{,}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보험료 비용은 3,000 + 6,000 = 9,000원이며, 나머지 6,000원은 **차기 보장기간에 대한 선급보험료**로 남는다.

임대료: 기초 선수임대료 3,000원은 이전에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4월 1일 계약 갱신 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액 당기 수익이 된다. 새로 받은 1년분 24,000원 중 당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4~12월의 9개월이므로, 수익은 $24{,}000 \cdot \frac{9}{12} = 18{,}000$원이다. 수령액 전부를 수익으로 기록했더라도 **차기 1~3월분 6,000원은 선수임대료**로 돌려야 한다. 따라서 당기 임대료 수익은 3,000 + 18,000 = 21,000원이다.

세전이익 영향: 다른 계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수익에서 보험료 비용을 차감한다. 21,000 − 9,000 = 12,000원만큼 세전이익이 증가하며, 이는 ①의 12,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4월 30일에 완공하였다. (주)한국이 공장건물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공사대금 지출]

20×1. 7. 1.	20×1. 10. 1.
₩50,000	₩40,000

[차입금 현황]

구분	금액	차입일	상환(예정)일	연이자율
특정차입금	₩50,000	20×1. 7. 1.	20×2. 4. 30.	8%
일반차입금	₩25,000	20×1. 1. 1.	20×2. 6. 30.	10%

① ₩1,000

② ₩1,500

③ ₩2,000

④ ₩2,5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에 발생한 이자에서 **건물 원가에 자본화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이자 4,500원에서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액 합계 3,000원을 빼면 당기 이자비용은 1,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공장건물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건물 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사와 최초 지출이 20×1년 7월 1일에 시작되고 완공은 다음 해이므로, 당기의 자본화 대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1. 당기 발생이자: 특정차입금 50,000원은 7월 1일에 차입했으므로 6개월분인 $50{,}000 \times 8\% \times \frac{6}{12} = 2{,}000$원이다. 일반차입금 25,000원은 1월 1일에 차입하여 연말까지 남아 있으므로 25,000 × 10% = 2,500원이다. 총발생이자는 2,000 + 2,500 = 4,500원이다.

2.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7월 1일 차입한 5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한 공사대금 50,000원에 전액 사용된다. 따라서 이 특정차입금에서 7~12월에 발생한 이자 2,000원 전액을 자본화한다.

3.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0월 1일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40,000원은 **특정차입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다. 이 금액이 연말까지 건설에 투입된 기간은 3개월이므로, 연간 기준 가중평균 지출액은 $40{,}000 \times \frac{3}{12} = 10{,}000$원이다. 일반차입금이 한 종류이므로 자본화이자율은 10%이고, 자본화액은 10,000 × 10% = 1,000원이다. 이는 일반차입금의 실제 발생이자 2,500원 한도 이내이다.

4. 당기 이자비용: 자본화액 합계는 2,000 + 1,000 = 3,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이자비용은 4,500 − 3,000 = 1,5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하고 현금 ₩1,500,000을 지급하였다. 취득일 현재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단, 취득자산은 철거 혹은 용도변경 없이 계속 사용한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토지	₩ 1,095,000	₩ 1,350,000
건물	₩ 630,000	₩ 420,000
기계장치	₩ 380,000	₩ 230,000

① 토지: ₩ 1,350,000, 건물: ₩ 420,000, 기계장치: ₩ 230,000

② 토지: ₩ 1,095,000, 건물: ₩ 630,000, 기계장치: ₩ 380,000

③ 토지: ₩ 1,095,000, 건물: ₩ 315,000, 기계장치: ₩ 162,500

④ 토지: ₩ 1,012,500, 건물: ₩ 315,000, 기계장치: ₩ 172,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괄취득한 자산은 총 지급액을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 2,000,000원에 대한 지급액의 비율이 75%이므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각각 1,012,500원·315,000원·172,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배분 기준: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므로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분한다. 일괄 지급한 1,500,000원을 각 자산의 **취득일 공정가치가 전체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한다. 표의 장부금액은 종전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므로 이번 취득원가의 배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통 배분비율: 표의 공정가치 열을 합하면 1,350,000 + 420,000 + 230,000 = 2,000,000원이다. 지급액과 공정가치 합계의 비율은 $\frac{1,500,000}{2,000,000} = 0.75$이다. 따라서 각 자산 공정가치의 75%를 취득원가로 배분하면 총 지급액 1,500,000원이 모두 배분된다.

토지: 공정가치 1,350,000원에 공통 배분비율을 적용하면 1,350,000 × 0.75 = 1,012,500원이다.

건물: 공정가치 420,000원에 공통 배분비율을 적용하면 420,000 × 0.75 = 315,000원이다.

기계장치: 공정가치 230,000원에 공통 배분비율을 적용하면 230,000 × 0.75 = 172,500원이다.

배분된 취득원가의 합계는 1,012,500 + 315,000 + 172,500 = 1,500,000원으로 지급액과 일치한다. 이 세 금액의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20,000, 만기 2년, 이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주)한국의 회계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를 작성하였다. (주)한국의 동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날짜	이자지급	유효이자	상각액	장부금액
20×1. 1. 1.				₩115,890
20×1. 12. 31.	₩10,800	₩12,748	₩1,948	₩117,838
20×2. 12. 31.	₩10,800	₩12,962	₩2,162	₩120,000

①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8%이다.

② 20×1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2,162이다.

③ 20×2년 말 사채관련 유효이자비용은 ₩12,962이다.

④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20×2년에는 기초 장부금액 117,838원에 연 11%를 적용하므로 유효이자비용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12,962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10,800원이다. 표시이자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frac{10,800}{120,000} \times 100 = 9\%$이다. 따라서 표시이자율은 연 8%가 아니라 연 9%이다.

② X: 할인발행한 사채의 상각액은 **유효이자비용에서 현금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다. 20×1년 말에는 12,748 − 10,800 = 1,948원이 상각된다. 이 금액만큼 장부금액이 115,890원에서 117,838원으로 증가한다. 2,162원은 20×2년 말의 상각액이다.

③ O: 상각표의 20×2년 12월 31일 행에서 유효이자는 12,962원이다. 이는 현금 지급이자 10,800원과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2,162원을 합한 금액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현금 지급이자뿐 아니라 할인발행차금 상각액도 이자비용에 포함**한다. 따라서 20×2년의 유효이자비용은 10,800 + 2,162 = 12,962원이다.

④ X: 유효이자율은 유효이자비용을 **해당 연도 기초 장부금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20×1년의 유효이자비용은 12,748원이고 기초 장부금액은 115,890원이므로 $\frac{12,748}{115,890} \times 100 \approx 11\%$이다. 따라서 유효이자율은 연 12%가 아니라 연 11%이다. 20×2년에도 기초 장부금액 117,838원에 11%를 곱하면 12,962.18원이며,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표의 12,962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은 보통주자본금 ₩100,000(주식수 100주, 주당 액면금액 ₩1,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 이익잉여금 ₩5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년의 자본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자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기초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없다)

◯ 3월 10일: 주주에게 보통주 한 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 3월 31일: 3월 10일에 결의한 주식배당을 실시하였다.
◯ 4월 9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2,100에 취득하였다.
◯ 6월 13일: 4월 9일 취득한 자기주식 4주를 주당 ₩2,200에 매각하였다.
◯ 8월 24일: 4월 9일 취득한 자기주식 6주를 주당 ₩1,700에 매각하였다.
◯ 11월 20일: 보통주 1주를 2주로 하는 주식분할을 의결하고 시행하였다.

① 자본과 관련된 거래로 인해 이익잉여금은 ₩8,000 감소한다.

② 자기주식처분손실은 ₩2,000이다.

③ 20×2년 12월 31일의 보통주자본금은 ₩110,000이다.

④ 20×2년 12월 31일의 보통주 주식수는 220주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이 10,000원 줄고,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한 뒤 남은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원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감소액은 **8,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래이다. 배당주식수는 100주 × 0.1 = 10주이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0주 × 1,000원 = 10,000원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여기에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남은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원을 차감하므로, 이익잉여금은 **10,000원 + 2,000원 = 12,000원 감소**한다. 이 거래들만 반영한 이익잉여금은 50,000원 − 12,000원 = 38,000원이다.

② O: 원가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처분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6월 13일에는 4주 × (2,200원 − 2,100원) = 4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생긴다. 8월 24일의 처분대가는 취득원가보다 6주 × (2,100원 − 1,700원) = 2,400원 적다. 이 부족액에서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400원을 먼저 상계**하면 자기주식처분손실은 2,400원 − 400원 = 2,000원 남는다. 이는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 차감항목이며, 결산 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③ O: 주식배당으로 발행한 10주의 액면총액 10,000원만큼 보통주자본금이 증가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은 자본금을 바꾸지 않고, 주식분할도 **주식수와 주당 액면금액만 바꿀 뿐 자본금 총액은 유지**한다. 따라서 20×2년 말 보통주자본금은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이다.

④ O: 주식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는 100주 + 10주 = 110주이다. 취득한 자기주식 10주는 6월에 4주, 8월에 6주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주식분할 직전에는 자기주식이 없다. 11월의 **1주를 2주로 하는 주식분할**로 보통주 주식수는 110주 × 2 = 220주가 된다. 이때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져 자본금 110,000원은 그대로이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의 20×1년 4월 초와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4월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이고, 가공원가는 ₩594,000이다. (주)한국의 4월 매출원가는?

	20×1. 4. 1.	20×1. 4. 30.
직접재료	₩18,000	₩16,000
재공품	₩4,000	₩14,000
제품	₩16,000	₩12,000

① ₩726,000

② ₩738,000

③ ₩740,000

④ ₩752,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는 직접재료 매입액에 가공원가를 단순히 더한 금액이 아니라, **직접재료·재공품·제품의 기초·기말 재고를 차례로 반영**한 금액이다. 이를 반영하면 4월에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7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 사용액: 표의 직접재료는 4월 초 18,000원, 4월 말 16,000원이다. 기초재고에 당월 매입액을 더한 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말재고를 빼면 **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직접재료 원가**가 된다.
직접재료 사용액 = 18,000 + 150,000 − 16,000 = 152,000원

2. 당기총제조원가: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직접재료 사용액에 가공원가 594,000원을 더하면 4월 중 생산에 투입한 총원가를 구할 수 있다.
당기총제조원가 = 152,000 + 594,000 = 746,000원

3. 당기제품제조원가: 재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다. 기초재공품 4,000원과 당기총제조원가를 합한 금액에서 **기말에 미완성 상태로 남은 재공품 14,000원**을 빼면, 4월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가 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4,000 + 746,000 − 14,000 = 736,000원

4. 매출원가: 기초제품 16,000원에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면 판매 가능한 제품의 원가이다. 여기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제품 12,000원**을 빼면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된다.
매출원가 = 16,000 + 736,000 − 12,000 = 740,000원

따라서 4월 매출원가는 74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제조기업인 (주)한국의 20×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 매출액 ₩100,000 ◯ 이자비용 ₩5,000
◯ 이자수익 ₩10,000 ◯ 매출원가 ₩70,000
◯ 감가상각비 ₩10,000 ◯ 종업원급여 ₩5,0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 광고선전비 ₩5,000

① 영업이익 ₩10,000
② 영업손실 ₩10,000
③ 영업이익 ₩20,000
④ 영업손실 ₩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조기업의 영업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이자수익·이자비용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0,000원이다.

계산 과정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이다. 제조기업의 이자수익 10,000원과 이자비용 5,000원은 **영업외손익**이므로 제외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원도 기타포괄손익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판매한 제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100,000 − 70,000 = 30,000원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기 전 이익은 30,000원이다.

판매비와관리비: 제시된 감가상각비 10,000원, 종업원급여 5,000원, 광고선전비 5,000원을 합산한다. 10,000 + 5,000 + 5,000 = 20,000원이다.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당기의 비용으로 차감**한다.

영업손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면 30,000 − 20,000 = 10,000원이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영업손실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며, ①의 영업이익 1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관서 A의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경우 재정운영순원가는?

○ 프로그램순원가	₩300,000	○ 관리운영비	₩150,000
○ 이자비용	₩13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
○ 부담금수익	₩30,000	○ 채무면제이익	₩300,000

① ₩150,000

② ₩220,000

③ ₩380,000

④ ₩43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자비용은 더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빼되, **비교환수익인 부담금수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차감하지 않아** 430,000원이 된다.

계산 과정

계산 기준: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으로 계산한다. 프로그램별 순원가에 기관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에 배분하지 않는 비용·수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산할 금액: 프로그램순원가 300,000원에 관리운영비 150,000원과 이자비용 130,000원을 더한다. 이 문제의 이자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가산한다. 합계 580,000원은 비배분수익을 차감하기 전의 원가이다.

차감할 금액: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원은 **비배분수익**이므로 원가에서 차감한다. 프로그램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은 아니지만 중앙관서 전체의 순원가를 줄이는 항목이다.

계산에서 제외할 금액: 부담금수익 30,000원과 채무면제이익 300,000원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에 해당한다. 이들은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한 뒤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할 때 차감하므로, 여기서는 빼지 않는다.

재정운영순원가 = 580,000 − 150,000 = 43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제조부문인 조립부문과 도장부문이 있으며, 보조부문으로 전력부문이 있다. 20×1년 3월 중에 부문별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제조부문이 사용한 전력의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전력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325,000은 변동원가가 ₩100,000이고, 고정원가는 ₩225,000이다. (주)한국이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조립부문에 배분되는 전력부문의 원가는?

구분	전력부문	조립부문	도장부문	합계
제조간접원가	₩ 325,000	₩ 250,000	₩ 400,000	₩ 975,000
실제사용량		300 kW	700 kW	1,000 kW
최대사용가능량		500 kW	1,000 kW	1,500 kW

① ₩97,500

② ₩105,000

③ ₩108,330

④ ₩12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으로, 고정원가를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나누어 배부한다. 조립부문의 변동원가 배부액 30,000원과 고정원가 배부액 75,000원을 합하면 10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중배분율법은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전력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을, 전력을 공급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원가는 각 제조부문이 필요로 하는 설비능력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 문제에서는 그 설비능력을 나타내는 **최대사용가능량**을 고정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한다.

변동원가 배부액: 표의 실제사용량은 조립부문 300 kW, 도장부문 700 kW로 합계 1,000 kW이다. 전력부문 변동원가 100,000원 중 조립부문이 실제로 사용한 비중만큼을 배부한다. 따라서 $100{,}000 \times \frac{300}{1{,}000} = 30{,}000$ 원이다.

고정원가 배부액: 표의 최대사용가능량은 조립부문 500 kW, 도장부문 1,000 kW로 합계 1,500 kW이다. 고정원가 225,000원은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확보한 설비능력의 비중**에 따라 배부하므로, 조립부문 배부액은 $225{,}000 \times \frac{500}{1{,}500} = 75{,}000$원이다.

전력부문원가 배부액 합계: 조립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30,000 + 75,000 = 105,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조립부문에서 자체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250,000원은 전력부문에서 배부받는 원가가 아니므로 여기에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제품 1단위에 2 kg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재료 1 kg당 가격은 ₩10이다. 각 분기 말 원재료 재고량은 다음 분기 원재료 예상사용량의 10%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국이 1분기 초에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는 220 kg이다. 분기별 실제(=목표)생산량이 다음과 같을 때, 1분기의 원재료 예산구입액은? (단, 재공품 및 제품 재고는 없다)

	1분기	2분기
실제생산량(= 목표생산량)	1,100개	1,500개

① ₩17,200

② ₩18,800

③ ₩22,800

④ ₩23,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재료 구입량은 생산에 사용할 양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뺀** 수량이다. 1분기에는 원재료 2,280 kg을 구입해야 하므로, 예산구입액은 22,800원이다.

계산 과정

1. 1분기 원재료 사용량: 표의 1분기 목표생산량은 1,100개이고 제품 1개에 원재료 2 kg이 필요하므로,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는 1,100 × 2 = 2,200 kg이다.

2. 1분기 말 목표 원재료 재고량: 기말재고는 **다음 분기 원재료 예상사용량의 10%**를 유지한다. 표의 2분기 목표생산량이 1,500개이므로, 2분기 예상사용량은 1,500 × 2 = 3,000 kg이고 1분기 말에 남겨 둘 원재료는 3,000 × 10% = 300 kg이다.

3. 1분기 원재료 구입량: 생산에 사용할 양과 기말에 남길 양을 합한 뒤, **이미 보유한 기초재고를 차감**한다. 따라서 구입량은 2,200 + 300 − 220 = 2,280 kg이다. 이는 '기초재고 + 구입량 = 사용량 + 기말재고'라는 원재료 수량 관계에 따른 것이다.

4. 1분기 원재료 예산구입액: 구입량에 원재료 1 kg당 가격 10원을 곱한다. 예산구입액은 2,280 × 10 = 22,8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외 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예외 없이'가 잘못된 표현이다.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출자·외국차관의 전대 등 법정 예외**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출연금이나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② X: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세입과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제2항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므로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대는 빌린 자금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③ O: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구분 순서는 **소관별 구분 후 회계별 구분**이다. 먼저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별로 나누고, 각 소관 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O: 「국가재정법」 제26조제1항은 정부가 예산의 여성·남성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분석하는 보고서이며, 제2항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결합제품 A, B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주)한국의 20x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와 기말제품재고는 없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제품 A와 제품 B의 매출총이익은?

구분	제품 A	제품 B
생산량	2,000단위	5,000단위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100	₩80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400	₩160
결합원가	₩350,000	

① 제품 A: ₩325,000, 제품 B: ₩325,000

② 제품 A: ₩390,000, 제품 B: ₩260,000

③ 제품 A: ₩425,000, 제품 B: ₩225,000

④ 제품 A: ₩500,000, 제품 B: ₩1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최종 매출액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는 A 600,000원, B 400,000원이므로, 결합원가를 **3 : 2로 배분**한다. 매출액에서 배분된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A 390,000원, B 2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추가가공 후 매출액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추정한 분리점의 가치이다. 문제에서 이 금액의 상대적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도록 했으므로, 먼저 제품별 순실현가치를 구한다.

제품 A의 순실현가치: 매출액은 2,000 × 400 = 800,000원이고, 추가가공원가는 2,000 × 100 = 200,000원이다. 따라서 순실현가치는 800,000 − 200,000 = 600,000원이다.

제품 B의 순실현가치: 매출액은 5,000 × 160 = 800,000원이고, 추가가공원가는 5,000 × 80 = 400,000원이다. 따라서 순실현가치는 800,000 − 400,000 = 400,000원이다.

결합원가 배분: 순실현가치 합계는 600,000 + 400,000 = 1,000,000원이고, A와 B의 배분 비율은 3 : 2이다. 공통으로 발생한 결합원가 350,000원에 각 제품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품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350{,}000 \times \frac{3}{5} = 210{,}000$원이다.

제품 B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350{,}000 \times \frac{2}{5} = 140{,}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기초와 기말제품재고가 없으므로** 각 제품에 배분된 결합원가와 해당 제품의 추가가공원가가 모두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제품 A의 매출원가는 210,000 + 200,000 = 41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800,000 − 410,000 = 390,000원이다.

제품 B의 매출원가는 140,000 + 400,000 = 54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800,000 − 540,000 = 260,000원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 390,000원과 제품 B의 매출총이익 260,000원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제시되어 있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은?

①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만 승인해야 하며,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지급조건은 식별할 수 없어도 된다.

③ 계약에 상업적 실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④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때 고객이 지급기일에 대가를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선지별 해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계약 승인과 이행 확약, 당사자의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 가능성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X: 계약 승인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승인을 서면으로만 제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X: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함께 **지급조건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조건의 식별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③ X: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려면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또는 금액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더라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O: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회수 가능성은 고객이 지급기일에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계약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도 높아야 하므로, 선지는 계약 식별 기준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의 20×1년 초 재고자산은 ₩25,000이고, 당기매입액은 ₩95,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유동비율은 120%, 당좌비율은 70%, 유동부채는 ₩80,000일 때,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① ₩52,000

② ₩64,000

③ ₩76,000

④ ₩8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는 유동부채에 대한 **기말 재고자산의 비율**이므로, 기말 재고자산은 40,000원이다. 기초 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이를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8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말 유동자산과 당좌자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유동부채×100이다. 두 비율 모두 **기말 유동부채 80,000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말 유동자산은 80,000 × 1.2 = 96,000원이고 기말 당좌자산은 80,000 × 0.7 = 56,000원이다.

2. 기말 재고자산: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두 자산의 차액인 96,000 − 56,000 = 40,000원이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의 금액이다.

3. 매출원가: 기초 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25,000 + 95,000 = 120,000원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이다. 여기서 **기말에 남은 상품의 원가를 차감**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120,000 − 40,000 = 8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450,000에 취득하면서 운송비와 설치비로 ₩50,000을 지출하였다.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사용 중이던 동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일상적인 수선을 위해 ₩5,000을 지출하였다. 지출의 결과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50,000으로 변경되었다. (주)한국이 20×3년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다)

① ₩50,000

② ₩60,000

③ ₩70,000

④ ₩8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생산능력과 사용기간을 늘리는 지출 100,000원은 장부금액에 더하고, 일상적인 수선비 5,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조정된 장부금액에서 변경된 잔존가치를 뺀 35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5년**에 배분하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7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취득원가: 기계장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설치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최초 취득원가는 450,000 + 50,000 = 500,000원이다.

2. 20×3년 초 장부금액: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변경 전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0}{5}=100,000$원이다. 20×1년과 20×2년의 2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 × 2 = 200,000원이므로, 추가 지출 직전 장부금액은 500,000 − 200,000 = 300,000원이다.

3. 추가 지출의 처리: 생산능력을 높이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지출 100,000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금액에 더한다. 반면 **일상적인 수선비 5,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지출 반영 후 장부금액은 300,000 + 100,000 = 400,000원이다.

4. 변경 후 잔여 내용연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과거 감가상각비를 수정하지 않고 변경 시점 이후에 반영**한다. 총내용연수가 취득일부터 7년으로 늘어났고 이미 2년을 사용했으므로, 20×3년 초의 남은 내용연수는 7 − 2 = 5년이다.

5. 20×3년도 감가상각비: 조정된 장부금액 400,000원에서 변경된 잔존가치 50,000원을 뺀 350,000원이 앞으로 비용으로 배분할 금액이다. 이를 남은 5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변경이 1월 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20×3년에는 변경 후 연간 감가상각비 전액을 인식한다.
$\frac{400,000-50,000}{5}=70,000$원

따라서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7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